

익산시, 말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본격화

VR 말산업체험관·승마길 조성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익산시는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해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용안면 난포리 일원 3만1686㎡에 공공승마장과 체험·재활 특화 공공승마시설, VR(가상현실)말산업체험관, 금강 수변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말산업특구 지정 등을 통해 55억 원의 사업비와 1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했고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매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설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승마를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각 체험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승마시설 부지에 말 방목장 및 승마숲길 등 관광경관을 조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대회 개최에 적합한 공공승마시설과 더불어 수려한 금강변의 갈대숲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 전국생물활동회 승마대회 등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VR 말산업체험관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을 활용해 다양한 승마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승마 체험과 각종 승마 게임 프

로그램이 설치된다.

아울러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말을 매개로 회복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공익적 활동인 재활·힐링 승마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용마를 구입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실내마장과 원형마장 등의 시설을 갖춘 뿐만 아니라 재활 승마지도사 등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승마활동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등과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이행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공공 승마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새로 건립될 공공승마장이 민간승마장과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체험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용안면 난포리 일원을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상당포구 마을과 두동 편백마을 등 농촌체험휴양시설이 집중돼 있고 용안 생태습지공원과 비탈개비길로 인해 연간 1만9000여명의 유료 체험객을 포함해 약 7만 여명이 찾고 있다.

익산시는 "공공승마시설은 승마에 호감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북부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설 구축으로 휴식 있는 삶에 기여하는 녹색 레저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시민 등 450여명 참석

군산시는 3일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황인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군산여고 동문 합창단과 극단 '집현'의 연극 '타악퍼포먼스 공연으로 시작해 양성평등 및 여성권의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시민 대표

의 양성평등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삶을 맛을 Up 해, Dream'을 주제로 박근아 와인드림퍼니 대표의 특강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황인주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며 다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의 기반 위에 양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축산악취저감 대책 지원, 단속 병행

고액분리기·안개분무시설 등 예산 30억 원 편성 농가 115곳 중점관리 사업장 지정, 모니터링 계획

익산시가 여름철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 지원확대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

익산시는 악취저감시설과 악취저감제 등을 농가에 지원해 축산 환경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30억 원 가량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빈번했던 농가 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과 퇴액비 밀폐시설, 고액분리기 등이 설치되며 시는 사업 효과에 따라 지원 대상

축산 농가를 2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시비와 농가 부담비율이 각각 50%씩이다.

이와 함께 6억 원을 투입해 악취탈취제와 악취방지용 미생물제 구입비도 지원한다. 지원되는 양은 약 120톤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600여 농가에 지급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농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농가에 지원될 악취저감시설과 악취저감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지원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저감 시설 지원이 불가능한 왕궁 정학촌의 경우 대기편승 확산악취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악취 저감에 나선다.

시는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비용을 지원하면서 악취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악취발생 농가 115곳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악취 발생 우려 농장 38곳을 악취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가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치한다. 특히 악취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악취 저감에 비협조적인 축산 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국내외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김임준)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가 청소년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고 올바른 정서함양과 역사적 소질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국내외 역사탐방 참가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거친 196명이 선발됐으며 6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국내 3개팀 100여명, 국외 3개팀 100여명이 역사 문화 탐방활동을 실시한다.

첫 일정으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31명의 학생들이 중국 산둥, 칭다오로 역사탐방을 떠난다. 오래 전부터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백제와 중국의 역사문화를 탐방할 예정으로 유교학파의 창시자 공자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문화 유산인 '공묘, 공림, 공부'를 방문한다.

이후에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34명의 학생들이 일본으로 역사 탐방을 계획 중이고 16일부터 20일까지는 35명의 학생들이 중국 백두산으로 각각 일정이 잡혀 있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해외 탐방 프로그램과 함께 울릉도, 독도 등 국내에 오린 역사를 간직한 지역 탐방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익산시는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작은도서관 실무자와 운영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제1강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시작으로 '책 읽고 싶어지는 북큐레이션 기법',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제' 등 모두 6회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강의 진행으로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 익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작은도

서관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교육을 마련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에는 총 17개의 주민 밀착형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과 도서관 책친구 파견사업, 찾아가는 동화구연 자원봉사 등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판매 활성화

3개월 간 27농가, 6200만원 수익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7기 공약사업인 마을전자상거래로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판매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 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IT전문가와 오픈마켓 판매대행사를 주축으로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6월말 기준 달빛소리수목원 등 52농가에 대한 생산현장 방문 상담과 스튜디오 촬영을 지원했고 그 중 27농가에 대해 육선과 11번가, 지마켓, 네이버스토어 등 오픈마켓 입

점을 도와 6200만(6월말 기준)원에 달하는 판매실적을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을 대신해 온라인 양파 특판행사를 실시해 불과 10여일 만에 약 6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시는 앞으로 소농·영세농·고령농을 대상으로 네이버 농리마트등록을 지원해 소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방안을 개척하는 한편 시장 블로그에 농산물 코너를 개설해 SNS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